

2025년도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미시의회
전문위원실
[문화환경위원회]

목 차

I. 출장개요	1
---------------	---

II. 방문기관

1.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2
2. 마란산 영상문화창의산업단지	9
3. 후난성 박물관	15
4. 기름생산공장 공업 유적지	22
5.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	26

III. 정책적 시사점 및 구미시 적용방안	33
-------------------------------	----

I 출 장 개 요

- 기 간: 2025. 8. 24.(일) ~ 8. 29.(금) / 5박6일
- 출장지역: 중국 창사시 일원
- 출장목적: 자매도시 창사시의 문화·관광·환경 정책과 산업유산 재생 사례를 확인하여, 구미시 정책과 연계 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 출 장 자: 총 8명(의원 5, 직원 3)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의원 (대표단장)	강승수	<u>인민대표대회</u> 사례 조사 비교분석 및 시정 발전방향 연구·검토
2		간사	이정희	<u>산업유산, 도시재생</u> 사례 조사 비교분석 및 시정 발전방향 연구·검토
3		의원	박세채	<u>후난성 박물관</u> 사례 조사 비교분석 및 시정 발전방향 연구·검토
4		의원	김영길	<u>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u> 사례 조사 비교분석 및 시정 발전방향 연구·검토
5		의원	김영태	<u>마란산 영상문화창의산업단지</u> 사례 조사 비교분석 및 시정 발전방향 연구·검토
6	구미시의회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3팀장	양희진	방문 기관 관련 자료 수집, 사진 및 질의응답 내용 기록
7		주무관	장종원	현장 실무 전반, 방문 기관 관련 자료 수집
8		주무관	이학제	현지 기관 연락 및 일정 조율, 사진 및 영상 기록

- 주요일정
 - 8. 24.(일) 중국 창사시 이동 [인천공항(21:00) → 창사 도착(23:30)]
 - 8. 25.(월)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 8. 26.(화) 마란산 영상문화창의산업단지, 후난성 박물관
 - 8. 27.(수) 기름생산공장 공업 유적지
 - 8. 28.(목)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
 - 8. 29.(금) 복귀 [창사공항(12:30) → 인천공항(16:30) → 구미 도착(22:00)]

Ⅱ 방 문 기 관

1.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 **방 문 일**: 2025. 8. 25.(월)

○ **방문목적**

- 지방의회의 운영 체계 및 정책결정 과정 견학·청취
- 양 도시 간 협력과제 발굴 및 교류 확대 방안 논의

○ **창사시 현황**

- 중국 후난성(湖南省)의 성도이자 신(新) 1선도시¹⁾ 중 하나
- 면적 11,819km², 인구 1,061만명(2024년)로 중국 10대 야간경제 영향력 도시(2023년) 중 1위²⁾를 차지하였으며, 최근 중국 내 문화관광 선도도시로 발전 중
- 구미시와는 1998년 10월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청소년 홈스테이, 경제·문화 교류 등을 이어오고 있음

○ **창사시의 역사 및 문화**

- 3,000년 역사의 고도
 - 서주(西周) 시기부터 창사라는 지명
 - 양쯔강(長江) 최대의 지류인 상강(湘江) 하류에 위치
 - 청나라 말기부터 전국 4대 쌀 생산지(중국의 주요 곡창 지대)
- 정치, 혁명의 중심지
 - 혁명적 전통의 명예를 지닌 도시(중국 공산당 혁명의 제반 활동에 관계)
 - 모택동, 유소기, 호요방, 주용기 등 국가 지도자들의 탄생지
- 역사와 문화의 도시
 - 주요 문화재 보호단위가 140여개 지정(국가급 문화보호단위 7개)
 - 후난성 박물관에 약 54만여 점의 문화재 소장(1급 문화재 100여개)
 -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유적 출토 (대표: 마왕퇴한묘, 손오기년간독)

1) 一线城市: 중국 내에서 기존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높은 발전 속도와 잠재력,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

2) 출처: 중국도시야간경제활력지수보고(2023)

○ 중국과 대한민국의 지방행정구조 비교

구 분	대한민국	중국
지방자치 단체 체계	2단계 체계 1. 광역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 2.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3단계 체계 1. 성급: 성, 직할시, 자치구 2. 지급: 지급시, 자치주 3. 현급: 현, 현급시, 시할구
지방의회	지방의회 - 직접 선출: 주민이 직접투표로 의원 선출 - 역할: 조례 제정·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입법 - 임기: 4년	인민대표대회 - 간접 선출: 하위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 - 역할: 법률상 최고 권력기관, 중국공산당의 방침을 승인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 수행 - 임기: 5년
행정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 - 선출방식: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 - 임기: 4년 - 역할: 자치단체의 행정 수반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	행정수반(시장/성장) - 선출방식: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임명(선출), 중국 공산당이 행정장관 선출에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 - 핵심역할: 당의 정책과 중앙정부의 지시를 집행
권력구조	단체장-의회의 이원적 구조 -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상호 견제 역할 수행 - 단체장과 의회는 별도로 선출되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당 일원화 체제 - 해당 지역의 공산당 위원회 당 서기가 최고 실권자 - 행정시장은 일반적으로 당위원회 부서기를 겸임하며, 당의 결정을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역할 수행 - 의결기관(인민대표대회)과 집행기관(행정부)이 실질적으로 당의 지도하에 통합됨.
선거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 직접 선출 -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경쟁하는 경선제도 실시	- 현급 인민대표대회 의원만 직접 선출 - 지급 이상의 인민대표대회 의원은 하위 대회에서 선출

○ <참고자료> 후난성 및 창사시 일반현황

구 분	후 난 성	창 사 시
위치	중국 남동부, 화중지구 장강중류의 남쪽 연안에 위치 * 위도: 북위24° 38' ~ 30° 08'	후난성의 성도이며 후난성 동정호 남쪽과 상강 양쪽 연안에 위치
면적	211,800㎢ (남한의 2.1배)	11,819㎢ (서울의 19.5배)
기후	연평균 기온 16 ~ 18° C로 대륙성 아열대 계절풍 기후	온난다습, 사계절이 뚜렷함
인구	약 6,568만 명(‘24년 기준)	약 1,061만 명(‘24년 기준)
행정구역	1개 자치주, 13개성 직할시, 19개 현급 시, 67개 현, 7개 자치현	6개 구, 1개 현, 2개 현급 시
주요산업	공정기계, 전자정보, 신소재,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품, 남·아연 정질 합금 등	공정기계, 자동차 및 부품, 생물의약, 전자정보, 문화관광, 식품제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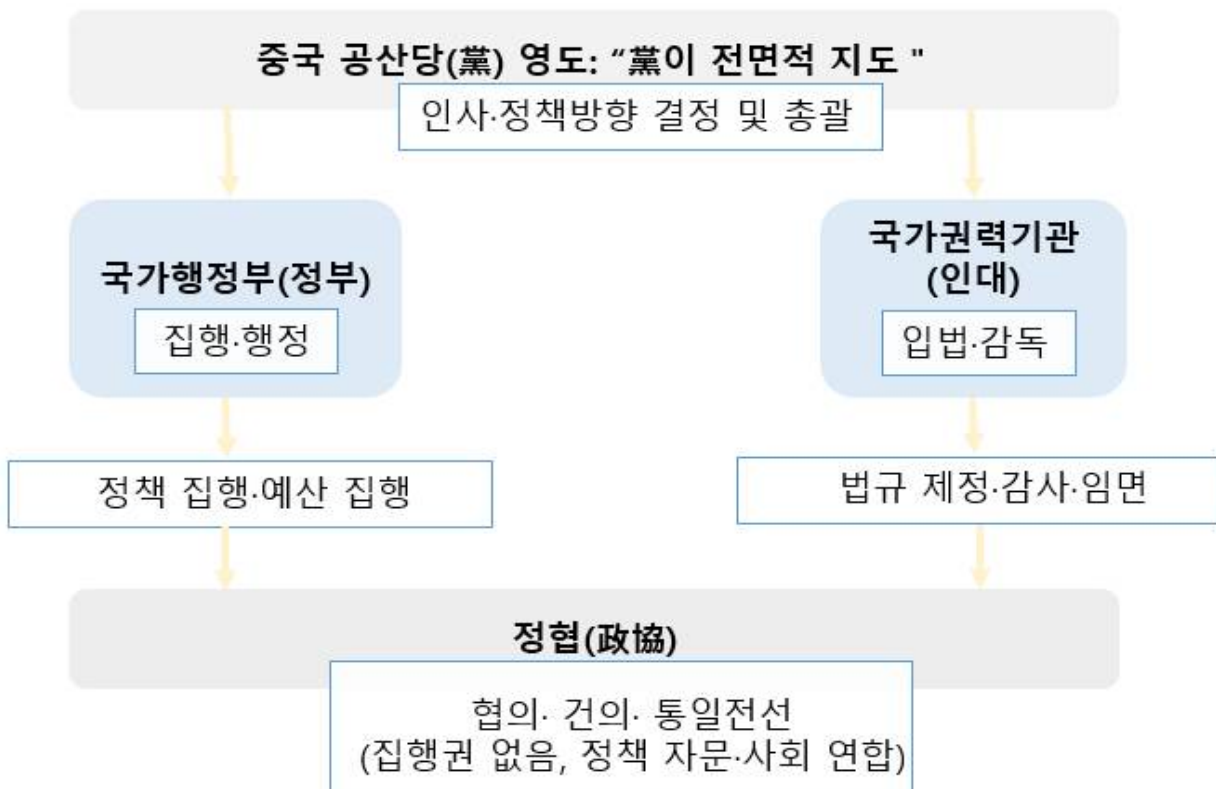
○ <참고자료> 중국 지도



○ <참고자료>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조직도



○ <참고자료> 중국 정치지도부 권력구조



○ 간담회 주요 내용

○ 지리적·문화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파트너십 강화

-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며, 특히 구미시와 창사시는 1998년 공식 자매도시 관계를 체결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왔음.
- 이번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방문은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상생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임.

○ 양 도시의 산업 강점을 결합한 상호발전 방안 협의

-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전자산업을 발전시켜온 구미시의 경험과, 신에너지, 자동차 등 첨단 제조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는 창사시의 강점을 결합하여 상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를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협의하였음.

○ 입법기관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 시스템 마련

- “입법기관의 외교는 국가 관계의 초석“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처럼, 양 도시의 입법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증진하고 법치의 힘을 강화하여 상호 교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자고 제안.
-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교류 협약서(MOU) 작성을 통해 교류 증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양 도시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협의하였음.

○ 질의응답

1. 구미시는 낭만도시 이미지 유치를 위해 야간경관 확대와 야간 관광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바,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차원에서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 창사시는 ‘야간소비촉진 조례(夜间消费促进 条例)’를 제정 중에 있으며, 지방정부 예산 내 ‘야간경제 특별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주요 상업거리, 문화공연 공간, 관광명소 등에서 밤 시간대 교통·안전·위생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방문객들의 이용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중임.

2. 구미시의회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참여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인민대표대회의 시민 의견의 제안과 참여 제도는?

- 창사시는 ‘공중참여기제’를 제도화하여, 주요 문화관광 개발 계획 및 대형 도시정비사업 등에 대해 민간기업, 학계, 시민 대표 그룹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또한 인민대표대회가 현지 사업 제안자들과의 정례 토론회를 열어 정책 조정이나 예산 반영 전에 의견을 수집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문제 제기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은 인민대표에게 직접 건의·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의는 투표 안건으로 편성되어 공식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음.
- 인민대표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을 반복하며, 제안 사항을 입법화·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의안 수립과 처리 절차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합리적이고 현장을 반영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3. 문화환경위원회는 구미시민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심의하고 있음. 창사시 인민대표대회의 주요 환경 정책은?

- 창사시는 생태환경을 시민 삶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민대표대회 산하 환경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과 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야시장 및 야간경제 활성화로 인한 위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게별 정화·배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장·대기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 조례를 마련했음. 이 모든 입법과정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황을 점검하고 있음.
- 또한, 거리의 담배꽂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쓰레기통마다 재떨이를 설치하고, 주요 도로와 공공장소에 분리수거가 가능한 다기능 쓰레기통을 배치하고 있음. 그리고 관리원의 담당구역별 책임제를 운영하여 정기적인 청소와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구미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용 증가로 인해 무단 방치와 보행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중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 방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 현재 지정주차구역제를 전면 도입하여 노란색·파란색 구획선 설정과 QR코드를 표시하여 시민이 PM전용 주차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용률이 높고 무단 방치가 자주 일어나는 구역에는 스마트 전자펜스가 설치된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공유업체와 위치 데이터를 연계하여 이용자가 반드시 지정 구역에 반납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지정 구역 외 주차할 경우 앱을 통한 반납이 불가하게 하며, 반복 위반 사용자는 이용을 제한하는 등 무단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방문사진



▲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방문 단체사진



▲ 인민대표대회 전시관



▲ 인민대표대회 대회의실



▲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인민대표대회 간담회



▲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접견

2. 마란산 영상문화창의산업단지

○ **방 문 일**: 2025. 8. 26.(화)

○ **방문목적**

- 창사시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문화창작 산업 클러스터 운영 방식을 청취하고 문화와 기술의 융합 모델 사례 확인
- 구미시 문화산단 · 청년창작가 지원 정책과 연계 가능한 정책 탐구 (예술창작스튜디오,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구미청년상상마루 관련)

○ **시설개요**

- 창사시 마란산 일대 약 15.7km² 부지를 영상문화산업 특화구역으로 개발한 대규모 단지로 방송사, 영상 제작사, 디지털 콘텐츠 기업, 저작권 거래 및 영상 장비 · 후처리 업체 등 3,000여 개 기업이 상주
- 초고속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기반 편집 · 저장 시스템을 갖추고, 디지털 자산 관리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창사시 정부가 산업 유도기금과 스타트업 지원금을 별도로 마련해 기업 유치와 창업 인큐베이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주요 시설로는 영상 제작 스튜디오, AI 기반 후반 작업 시설, 가상현실 촬영 공간, 저작권 서비스 센터 등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영상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 마란산 영상창의산업단지 특징 및 주요 정책

- 단순히 공간 제공·인센티브 부여 수준을 넘어,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요소인 플랫폼, 기술, 인재, 시장 확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조성하였음. 후난 위성 TV를 중심으로 한 후난 미디어 그룹이 단지 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여, 방송 제작 능력, 인플루언서, 방송 채널 및 마케팅까지 단지 내 중소·창업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시장 접근과 협업 기회를 제공함.
- 입주 기업에는 R&D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감면 및 영상 산업 발전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기업 투자와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일원화된 생태계를 조성하였음. 기획, 촬영, 제작, 편집, 배포,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이를 위해 최첨단 스튜디오,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였음.
- 단순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넘어 인공지능, 가상현실, 5G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영상 콘텐츠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통해 영상 콘텐츠의 다양화와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도 이어가고 있음.
- 후난 대학 등 인근 대학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하여 창업 및 영상 분야 인력 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구미시 관련 현황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현황

- 위 치: 고아읍 포아로 654-10 (구, 대방초교)
- 규 모: 부지 11,599㎡, 건물 1,204㎡(지상2층)
- 예 산 액: 73,700천원(출연금)
- 개 관 일: 2000. 9. 30.
- 주요공간: 작업실 8실, 체험교실 6실, 가마실 2실, 창고 등
- 작가현황: 6명(남3, 여3 / 회화2, 목공예2, 한지공예1, 우리옷연구1)
- 관내 학생 및 교원,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공예(도자기, 한지공예 등) 교육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위한 작업 공간 지원(입촌작가 레지던시 지원)

※ 운영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명	운영 내용
도자기	단청무늬 원형접시	전통 단청무늬 운형도자접시 제작
	도자기 핸드페인팅	물레 실습 및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
	벽결이 화병	점토 화병 만들기 및 분청 제작기법 이해
	귀얄문 직사각접시	자연물과 도자기를 결합한 디자인 제작
	도자기 화병	생활 도시공예의 역사와 쓰임의 이해 및 제작
한지공예	한지접시, 바구니	한지공예 문양의 이해와 제작

구미영상미디어센터 현황

- 위 치: 구미시 산책길 75(원평동)
- 개 관 일: 2023. 10. 6.
- 규 모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연면적 772.49㎡, 지상 2층
 - 드림큐브: 연면적 114.6㎡, 컨테이너 6동(전시2, 대여3, 창고1)
- 예 산 액: 343,000천원(출연금)
- 미디어 교육 및 영화 상영, 영상·촬영 장비 및 공간 대여
- 대여공간: 13개소(라디오 스튜디오, 편집실, 1인 스튜디오 등)
- 촬영, 편집, 스피치 등 분야별 수요자 중심 맞춤 미디어 교육
- 방송 장비(촬영, 음향 등) 및 공간 대관을 통한 영상미디어 창작 활동 지원
- 세대별, 시기별, 주제별 다양한 유형의 영화 상영 및 관련 행사 개최

구미청년상상마루 현황

- 위 치: 구미시 금오시장로 13, 3층(원평동)
- 개 관 일: 2024. 4. 30.
- 규 모: 연면적 1,081㎡
- 예 산 액: 168,500천원(출연금)
- 주요시설: 개인작업실 12실(20평 6실, 10평 6실), 전시·휴게공간, 샤워실 등
- 입주작가 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소통프로그램 운영(스튜디오 기획전 등)
- 창작활동 지원금 월 30만원 지원(월 10일 이상 창작활동 수행 시)
- ※ 입주작가 현황: 총 11명(남3, 여8)
 - 분야:미술7, 웹툰 1, 사진 1, 패션 1, 캐릭터 콘텐츠 1

○ 질의응답

1. 구미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영상문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추진 전략은?

- 단지는 2017년 창사시가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출발했으며 시 정부가 문화콘텐츠+기술 융합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초고속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기반 편집 시스템을 갖춘 제작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였음. 현재는 제작, 편집, 저작권 거래가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원스톱 제작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이와 함께 산업 유도기금과 창업 지원금 등 재정 지원을 마련해 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돕고 있음.

2. 구미시는 청년상상마루 운영으로 지역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에 머무르며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정책을 추진 중임, 다만 창작 이후 창업이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됨. 마란산 단지에서는 청년 창작자와 기업이 협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 마란산 단지에서는 문화 창 의 스타트업 육성계획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초기 창업자는 임대료와 장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전문 멘토링과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받음. 특히 ‘마주 계획’이라는 전용 기금 운용으로 영상·디지털 콘텐츠 분야 청년 창작자와 스타트업 기업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3. 최근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민간 기업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방안은?

- 단지 조성 초기부터 후난위성TV와 대형 제작사, 대학 연구기관이 전략적 협약을 맺어 공동 제작과 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특별 구역 지정으로 중국 정부와 창사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유치가 가능하였음.

4. 구미시는 예술창작스튜디오, 영상미디어센터 등 문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간 연계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이러한 연계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었는지?

- 단지는 창사시가 공간 조성과 기본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고, 콘텐츠 제작·창업·수익 활동은 민간 기업과 창작자가 주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단순 임대 방식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과 창작자 간 협업을 지원하는 운영 조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연계, 창업 상담 등의 운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행정은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 환경을 유지·지원하는데 집중하고, 민간은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를 주도하여 운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특히, 영상문화 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인재와 기업을 한 공간에 집적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연계 구조 형성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음. 이처럼 특정 분야를 특정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며, 연계 연결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방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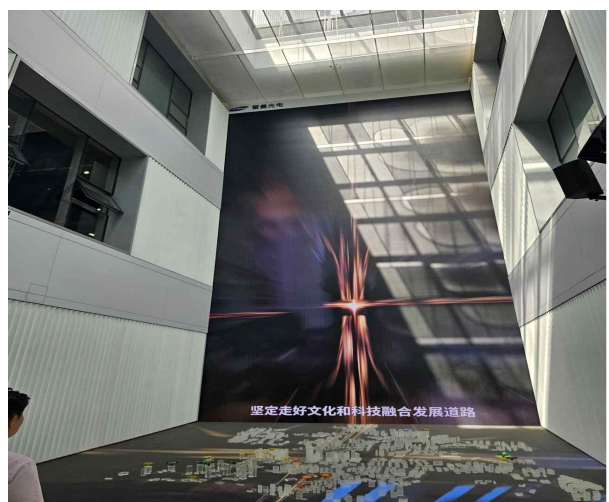
▲ 마란산 영상문화창의산업단지 방문 단체 사진



▲ 마란산 영상문화창의산업단지 전시관



▲ 마란산 영상문화창의산업단지 영상기술



▲ 마란산 영상문화창의산업단지 소개영상



▲ 마란산 영상문화창의산업단지 현황 청취



▲ 마란산 영상문화창의산업단지 회의

3. 후난성 박물관

- **방 문 일**: 2025. 8. 26.(화)
- **방문목적**: 지역 역사·문화자산 보존 및 전시 운영 방식을 고찰하여,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강화·시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관광객 유치 방안 도출[구미성리학역사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박물관) 관련]
- **후난성박물관 현황**
 - 창사시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 기관
 - 중국 1급 박물관이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건설한 국가급 8개 중점 박물관 중 하나
 - 1951년 설립되었으며, 1956년 정식 개관하였음
 - 2017년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가 설계한 신관을 재개관하며 현대적 면모를 갖추
 - 약 54만여 점의 풍부한 유물을 소장, 특히 기원전 1000년의 마왕퇴한묘(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핵심화된 전시를 운영 중
 - 상(商)·주(周) 시대의 청동기, 초나라 유물, 역대 도자기, 서화 등 다양한 시대의 예술품과 공예품을 전시함으로써 후난성의 역사를 구현

○ 후난성 박물관 특징 및 주요 콘텐츠

- 후난성박물관은 마왕퇴 한묘라는 대표적 역사 유산을 핵심 콘텐츠로 발굴하여 박물관의 브랜드로 성공적으로 구축
- 2,100년 전의 신추이 부인 미라, 매미 날개처럼 얇은 소사단 비단 옷, 그리고 정교한 칠기와 비단 그림 등의 독창적인 유물을 전시.
- 전통적인 전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기술(VR, 온라인 전시, 입체 전시)을 활용하여 전시 기법을 다양화하였음. 홈페이지에는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의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 중이며 가상 투어 전시를 체험할 수 있음.
- “다문화 인지 체계 구축 및 평생 교육 서비스 체계 구축”을 교육 이념으로 삼아 특별 투어, 강의, 회원, 가족 테마의 날 등과 같은 다양한 범위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시 교류 방면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멕시코, 네덜란드, 유고슬라비아, 한국, 일본, 튀니지, 싱가포르, 독일 등 국가와 지역에 여러 문화유물 전시회를 연계하여 개최함.
- 전면 무료 입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방문 시 예약이 필수적임. 다만, 65세 이상, 전·현직 군인 등은 예약없이 방문이 가능함.
- 웨이보, 위챗 등 SNS 플랫폼에 공식 계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시 문화재 및 특별 전시를 소개하고 역사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하고 있음.

○ 구미시 관련 현황

구미성리학역사관 현황

- 조성기간: 2010년 ~ 2020년
 - ※ 2020.10.23. 개관 / 2020.12.18.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
- 위 치: 구미시 금오산로 336-13 및 336-29 일원
- 규 모: 부지 86,781㎡, 건축연면적 3,097.62㎡ ※ 야은역사체험관 포함
- 건 립 비: 25,147백만원(국비 13,519, 도비 800, 도비 1,738, 시비 9,090)
- 전시시설: 23개동(성리학역사관 18, 야은역사체험관 5)
- 연간 운영비: 1,038백만원(2025년 기준)
- 소장·보관 자료: 10,349점
- 운영방법: 구미시 직접 운영
- 방문현황
 - 방문객 누계: 501천명(2020.10.23. ~ 2025.04.30.)
 - 개관 10개월 만에 10만명 돌파
 - 월 평균 9,114명, 일 평균 304명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역사관) 건립 현황

- 사업기간: 2025. ~ 2029. (5년)
- 사 업 비: 100,000백만원 (매칭비율 미정)
- 위 치: 구미시 공단동 282번지 (주)방림 부지 일원
- 규 모: 지하 2층·지상 5층, 부지 15,000㎡, 연면적 15,000㎡
- 주요시설: 전시실, 수장고, 미디어라이브러리, 체험공간 등
- 사업주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 질의응답

1. 구미시는 대표적 핵심 전시 콘텐츠의 부족으로 전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후난성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마왕퇴 한묘에 집중하는 전략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 마왕퇴 한묘는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발굴된 20세기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였음. 박물관은 이 유물을 단순 소장하는 것을 넘어, 이를 중심으로 박물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전략을 세웠음. 신추이 부인 미라는 후난성 박물관의 상징이자 관광객을 유치·홍보를 위한 핵심적인 콘텐츠가 되었음.

2. 구미시 또한 대부분의 박물관 및 전시시설 입장료를 무료로 운영 중임. 후난성 박물관의 재원 확보 방안은?

- 후난성박물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특별 기획 전시 입장 수익과 박물관 기념품샵 판매 수익 등으로 운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3. 구미시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국가 박물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후난성 박물관이 국가급 박물관으로 지정받기까지의 과정은?

- 박물관은 후난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2008년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지정되었음. 이 등급은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평판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후난성 박물관은 전시 수준, 사회 교육 기능 등을 꾸준히 인정받아 현재까지도 국가 1급 박물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4. 한국은 지역 간의 공동 기획전시가 활발하지 않은 편임. 후난성 박물관은 외국 또는 타 지역 박물관과의 협력 연계 전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재방문객 유치를 위해 중국 내외의 박물관 및 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최근에는 프랑스-중국 수교 60주년 기념 프랑스 아시아 미술관 협력 사진전, 위구르 자치구 박물관 공동 유물전을 개최하기도 하였음. 협약과 정기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기획 전시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음.
- 또한, 관람객의 분산과 시민들의 유물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사시 내 메이시후 문화예술센터에도 소장 중인 유물을 상시 전시하고 있음.

4. 구미시도 산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인데, 유물을 단순 전시하는 것을 넘어 흥미롭고 교육적으로 전시할만한 방법이 있는지?

- 대규모 시설 구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가상 전시관이나 모바일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현재 홈페이지에 박물관 소장품을 3D 모델링, 내부 구조 형상화 하여 온라인에 공개를 하고 있으며 유산에 담긴 역사와 이미지를 활용해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제작하고, 전시 기법에 활용하고 있음.
- 또한 특별 전시를 가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과 유물 관련 이야기와 전설을 애니메이션 및 영상으로 제작하여 SNS에 홍보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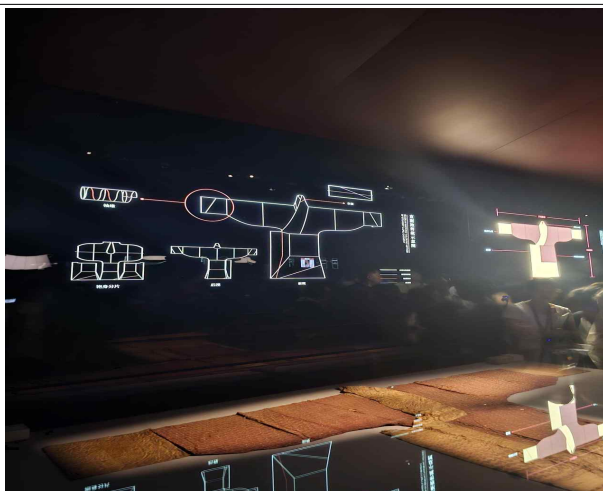
○ 방문사진



▲ 후난성 박물관 방문 단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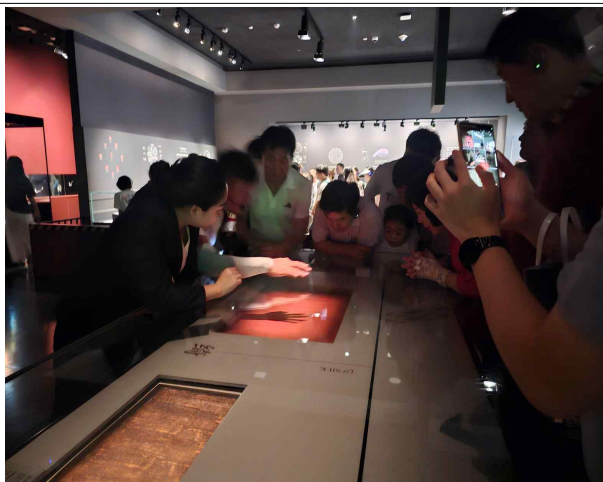
▲ 후난성 박물관 전시관



▲ 후난성 박물관 전시



▲ 후난성 박물관 전시



▲ 후난성 박물관 전시관



▲ 후난성 박물관 현황 청취

4. 기름생산공장 공업 유적지

○ **방 문 일**: 2025. 8. 27.(수)

○ **방문목적**

- 과거 식용유 생산 공장을 보존·재생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창사 기름생산공장 공업유적지의 도시재생 사례를 견학하여 노후 산업시설을 문화·관광·청년 창작 거점으로 전환 사례 확인
- 구미문화선도산단 및 공장부지 재생사업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시사점 도출[문화선도산단 사업 관련]

○ **기관현황**

- 1930년 개인이 조성한 기름 생산공장이며, 1949년 국가 소유로 전환되어 국영기업으로 운영되었으며, 근무 인원은 약 500명 규모였으나, 수요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2000년대 초반 폐업하였음.
- 오렌지섬 일대 기준으로 문화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 6월 착공, 2024년 8월 복합문화공간으로 완공하였으며 사업 조성비는 총 200억 원 이상 투입하였음.

○ **주요 시설 및 특징**

- 과거 기름 저장 시설이던 기름통 12개를 원형 보존하여 전시관·카페·기념품숍(기름으로 만든 비누 등 특화 상품 판매)과 다양한 상설·기획 전시, 사인회·엑스포·박람회·노래쇼 등 행사를 운영 중.
- 지하철역 인접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일일 최대 5,000명, 평소 1,000 ~ 2,000명의 방문객이 찾는 창사시의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 잡음.
- 창사시 정부가 기초 인프라와 보존을 담당하고, 카페·기념품숍 등 상가와 전시·행사는 민간 운영사가 맡는 공공-민간 협력 방식으로 운영.

○ 질의응답

1. 폐공장 특성상 오래된 철골과 설비의 부식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 부식 부위는 화학 약품으로 녹을 제거하고, 방문객이 접촉하는 손잡이 · 전시 공간은 나무로 마감해 안전을 확보하였음. 외관은 일부러 녹슨 색감을 유지해 원형의 질감을 살렸으며, 나무로 마감한 부분도 유사한 색감을 갖게 하여 공간의 통일성을 높였음. 향후 장기 유지와 안전을 위해 부식 방지 도료 도포와 주기적 점검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2. 공업유적지의 추진 역사와 주요 변천은 무엇인가?

- 1930년 민간 소유로 설립하였으며, 1949년 국유화되어 국영기업으로 운영되었음. 전성기에는 약 500명이 근무했으나, 시장 수요 감소와 설비 노후화로 2000년대 초 폐업하였음.
- 주요 건물의 외관 · 주요 기계 설비는 원형을 유지하되, 전기 · 소방 · 배수 등 안전 설비를 전면 교체했음. 모든 공사는 원형 보존 70% 이상을 기본 원칙으로 진행하며, 시 문화유산 보호위원회와 건축 전문가가 설계 · 감독을 공동으로 담당하여 조성하였음.

3. 구미시는 신라불교초전지처럼 도심 외곽에 위치한 문화시설의 접근성 부족으로 시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문화시설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계획이 있었는가?

- 공장 부지를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하고, 카페 · 기념품숍 · 전시관 등 상시 개방 시설을 유치해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음. 특히 기름을 활용한 비누 등 특색 있는 기념품 판매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주민 · 청년이 직접 기획 · 참여하는 주말 플리마켓, 야외 영화제, 공동 벽화 프로젝트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작 워크숍, 청년 창업자 대상 전시 · 판매 공간 지원 등으로 지역 인재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음.

4. 구미시도 방림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시설의 조성을 계획 중인데, 수익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통일성 있는 공간의 조성 및 시설 안전 유지를 위해 창사시 정부가 관리를 맡고 있으며, 카페, 기념품숍, 기획 행사 유치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공공성 확보와 창의적인 콘텐츠 기획이 가능하였음. 현재 민간 운영을 통해 얻는 직접적인 수익은 크지 않지만, 도시재생과 산업유산 보존의 상징 공간으로서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음.

구미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 현황

- 사업기간: 2025 ~ 2030년(6년)
- 사업위치: 구미국가1산업단지 일원
- 사업내용
 - 방림부지 내 공장 9개동(총 면적 14,521㎡)을 원형 보존하여 복합문화시설로 조성
 - 방림부지와 1공단로를 중심으로한 문화산단 사업과 既추진사업(혁신지구, 반도체, 방위산업 등)을 연계해 1산단 특화산업 거점 구축

※ 랜드마크·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 사업기간: 2025 ~ 2030년(6년)
- 사업위치: 공단동 282번지 일원(방림 구미공장)
- 랜드마크: 산업유산 기반 청년 친화 랜드마크 조성
 - 사업비: 2,200백만원(국 18,900, 도 3,990, 시 9,310)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반도체, 디자인 관련 기업 입주 공간 제공
 - 사업비: 10,000백만원(국 7,000, 도 900, 시 2,100)

□ 사업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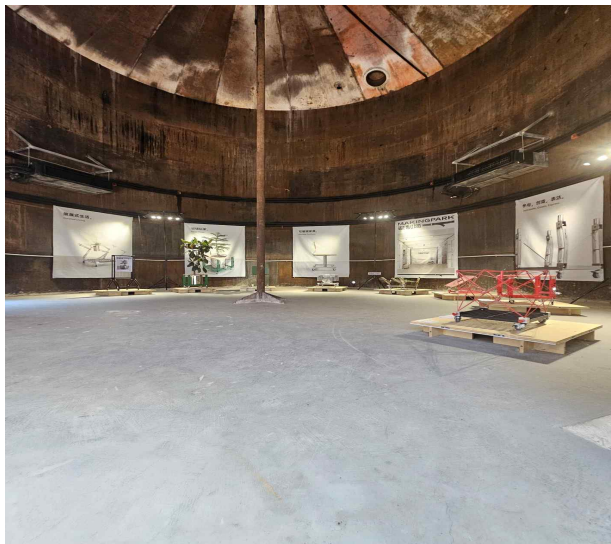
○ 방문사진



▲ 기름생산공장 공업 유적지 단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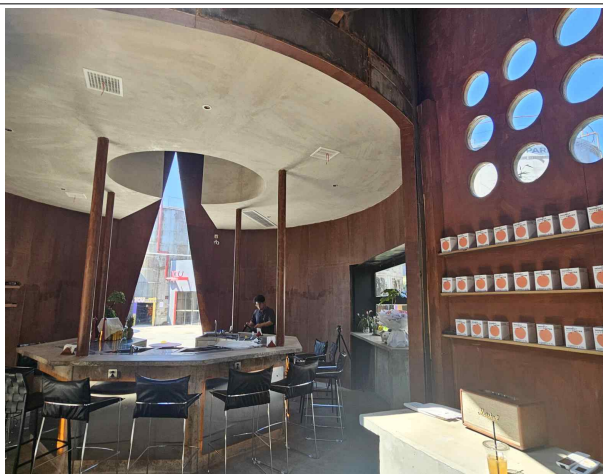
▲ 기름생산공장 공업 유적지 기념품샵



▲ 기름생산공장 공업 유적지 전시 공간



▲ 드럼통 재활용 사례



▲ 기름생산공장 공업 유적지 카페 공간



▲ 기름생산공장 공업 유적지 회의

5.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

- **방 문 일**: 2025. 8. 28.(목)
- **방문목적**: 공공 민간 협력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현대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운영 사례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공공문화시설의 관리방안,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구미문화예술회관, 구미문화재단 관련]
-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 현황**
 -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는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미래지향적 건축물로, 유선형의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
 - “창사의 별“이라 불리며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 연면적 115,000㎡에 달하는 이 대규모 복합 문화시설
 - 운영시간: 오전 10시 ~ 오후 18시(화~일 운영, 월요일 휴무)
 - 2012년 착공, 2017년 완공, 조성비 약 30억위안(한화 약 5,900억원)
 - 2017년 대극장 개관(1,800석)
 - 2019년 현대미술관(MICA) 완공
 - 대극장, 현대미술관, 다목적 홀(500석) 등 세 개의 주요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접한 메이시후 호수의 경관과 조화 이루어 도시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음.
 - 기획 전시시 1일 최대 방문객은 5천여명(기획전시관 기준)

○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 특징 및 주요 콘텐츠

-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 ‘노트르담 대성당’, 영국 피아니스트 리처드 클라이드먼 피아노 콘서트, 쿠바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등 국제적 공연 개최
- 중국 고전 무용극, 창작 뮤지컬, 오페라, 몰입형 촛불콘서트, 토크쇼 등 다양한 예술 공연 개최
- 후난성 박물관 유물 등을 활용한 기획 전시와 후난성 출신의 전쟁 영웅 및 중국 역사에 대한 전시를 상시 운영
- 수천여개의 풍선을 활용한 전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작품 전시 등 아이 및 아동 대상 기획 전시를 다수 개최하고 있음
- 대극장, 미술관, 다목적 홀, 쇼핑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목적 활용도를 극대화
- 신도시 개발 단계에서부터 문화시설을 핵심 요소로 설정해, 예술센터 인근에는 대규모 공원, 쇼핑몰, 문화 시설을 집적화하여 하여 도시 브랜드화의 핵심 랜드마크화를 이끌어 냄.
- 야간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저녁 시간대 방문객을 유치하고 창사시 야간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구미시 관련 현황

구미문화예술회관 현황

- 위 치: 구미시 송정대로 89(송정동)
- 개 관: 1989. 10. 16
- 각종 문화예술 공연 개최 및 전시관 운영
- 시립예술단 운영(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 면 적
 - 대지면적: 20,587㎡
 - 연 면 적: 10,319㎡
- 공 연 장
 - 대공연장: 1,183석 (1층 758석, 2층 425석) (1층 장애인석 12석 포함)
 - 소공연장: 283석 (장애인석 3석 포함)
- 전 시 실: 2개(제1전시실: 482㎡, 제2전시실: 201㎡)

※ 강동문화복지회관 현황

- 위 치: 구미시 인동가산로 392(인동동)
- 개 관: 2017. 5. 12.
- 대지면적: 67,970㎡, 연면적 10,393㎡
- 공연장
 - 대공연장 667석, 소공연장 250석

[재]구미문화재단 현황

- 위 치: 구미시 송정대로 120 (구미상공회의소 별관 1층)
- 설 립 일: 2024. 1. 23.(설립등기) * 5.29.(수) 출범
- 조직/구성: 4팀 26명(현원: 4팀 25명)
- 주요역할: 지역문화예술관련 정책 및 사업 개발 · 추진
- 주요사업

□ 창작기반 활성화 사업

- 전문예술인 활동 지원 및 청년예술인 육성 사업
-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사업
-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
-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기획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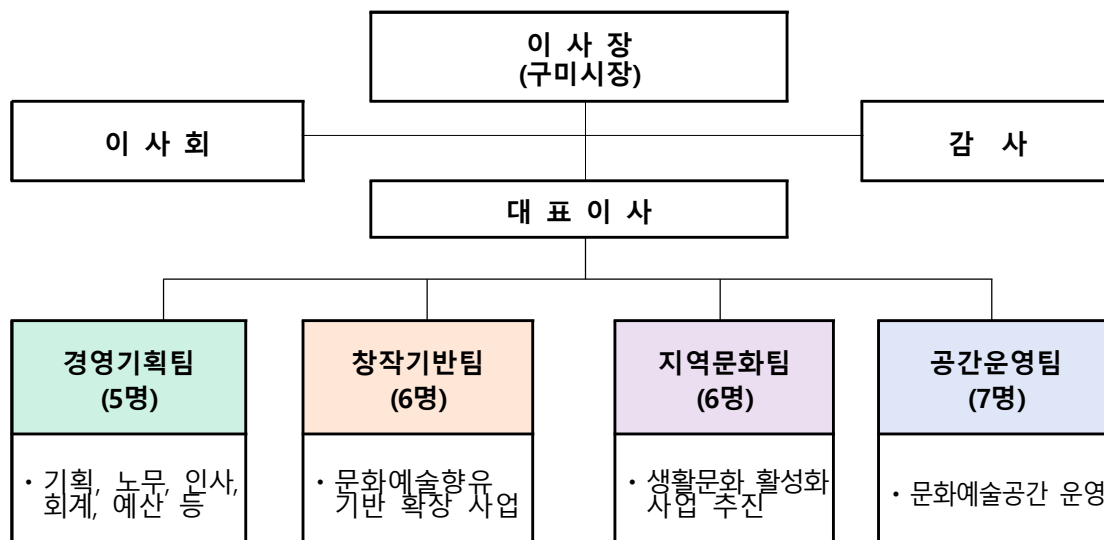
□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 지역 문화자원 콘텐츠화 사업, 문화가 있는 마을 사업
- 시민문화 활동 지원 및 거리문화 활성화 사업

□ 문화예술공간 운영

- 구미청년상상마루,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구미생활문화센터, 금리단길 각산살롱, 야외무대 공연 운영

※ 조직구성



○ 질의응답

1. 시민 및 방문객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은?

- 디자인과 야간경관으로 도시의 랜드마크화와 문화시설의 집약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메이시후 호수의 물결을 형상화하여 유선형의 유기적인 곡선 디자인으로 시설의 디자인을 일원화하였음.
- 또한 건물 외부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공원 및 호수와의 경관 조화를 이끌어 새로운 야경 명소로 자리 잡았음. 이와 더불어 센터 인근에 쇼핑몰, 식당, 영화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였으며, 호수 공원과의 산책로를 조명과 함께 조성함으로써 방문객 및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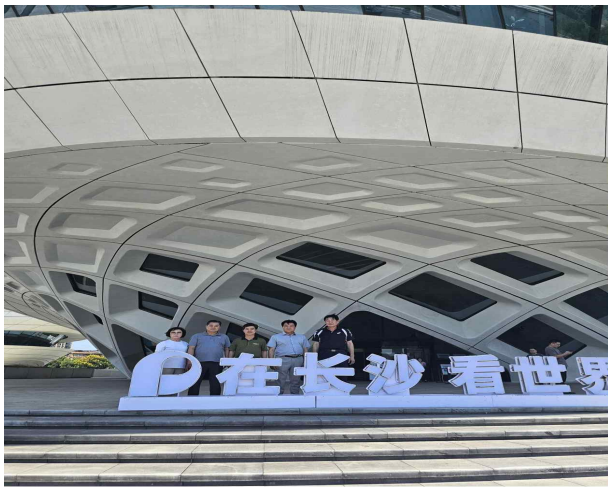
2.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은 오래된 시설이지만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어, 대규모 재건축 없이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참고할 만한 운영 방법이 있는지?

- 대규모 재건축 없이도 기존 시설의 야간 조명이나 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충분히 도시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음. 야간 경관 조명을 재정비하여 야간 조명을 통한 도시 명소로 만들 수 있으며, 메이시후 호수처럼 인접한 자연 경관을 활용하거나 미디어 파사드, 야간 산책로 설치 등 활용하여 건물의 시각적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3. 후난성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연계한 기획 전시를 운영하면서 동일 유물의 반복 전시나 콘텐츠 소진 등의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센터의 운영 기준은?

- 전시의 성격과 역할을 구분하여 상호보완형 체계로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음. 후난성 박물관은 학술·역사성 위주, 예술센터는 주제별·체험형 전시를 통해 전시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이를 통해 전시 콘텐츠 한계를 보완하고 정기적인 순환 전시를 통해 유물의 반복적인 전시를 예방하고 있음.

○ 방문사진



▲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 단체사진



▲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 전경



▲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 현황 청취(공연장)



▲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 공연장 내부



▲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 현황 청취(전시관)



▲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 전시관 내부

Ⅲ

정책적 시사점 및 구미시 적용방안

1. 인민대표회의

①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추진 체계 구축 필요

- ▶ 창사시는 야간소비촉진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 야간경제 전용특별기금 운영 등 총체적으로 정책 추진
- ▶ 구미시 도시 이미지 브랜드화 전략 수립 및 전용 자원 확보, 장기재정계획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모델 구축 필요

② 시민참여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화 필요

- ▶ 창사 인민대표대회는 정책 수립·입법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중참여기제’를 운영하여 현장 조사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
- ▶ 구미시의회도 의정활동 수행 시 특히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학술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의견 청취와 현장 조사, 토론회 중심으로 활동하는 등 시민과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주요 정책 검토 필요

③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방식의 체계화

- ▶ 창사시는 ‘공동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민 제안, 민원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주요 사안은 인민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시민 의견을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
- ▶ 구미시의회의 단순 민원 접수 및 결과 통보 방식을 개선하고, 민원 처리 과정과 결과를 시민에게 단계별로 안내하고, 반복 민원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구현 필요

④ 거리환경 개선 분야 우수시책 도입

- ▶ 흡연구역에 재떨이를 결합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관리원을 배치, 정기적인 청소와 수거 체계 구축 필요
- ▶ 전동자전거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를 줄이기 위해 시민이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정 주차구역제 설치, 지정구역 외 반납 제한, 수거 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2. 마란산 영상문화창의산업단지

① 문화시설들의 유기적 연계 운영을 위한 총괄 전략 필요

- ▶ 대규모 산업단지를 한 곳에 조성하는 것은 부지·예산 여건 상 실현이 어려움. 다만 구미영상미디어센터와 예술창작스튜디오, 구미청년상상마루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는 **총괄적 문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제작·전시·창업·인재유입이 이어지는 유기적인 협력 연결 생태계 구축 필요
- ▶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문화재단이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과 운영, 홍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 프로그램 기획과 예산의 통합 관리 그리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안내와 홍보가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② 특정 핵심 분야 지정 및 집중 지원

- ▶ 청년이 모이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지원이 아닌 지역만의 **특정 핵심 분야**에 인프라를 확보하고 **집중 지원**하여 구미만의 도시 브랜드 확립 필요
- ▶ 단순한 임대료 감면, 장소 제공 및 소규모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영상·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장기 입주공간 제공, 전문 장비와 스튜디오 확충, 심화 교육, 창업 네트워크 제공 등 청년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 특히 예술창작스튜디오 및 청년상상마루는 기존의 회화·조형 중심 입주 작가 선발에서 벗어나 사진, 영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가 한 공간에서 협업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3. 후난성 박물관

① 핵심 콘텐츠 발굴 및 능동적 운영 전략 필요

- ▶ 대규모의 전시시설을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특별 전시 중인 마왕퇴 유물 사례처럼, 도시의 정체성 강화,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구미시만의 대표적 핵심 콘텐츠 개발 필요
- ▶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시 박물관의 외형부터 내부 콘텐츠까지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전시기법을 도입하는 등 첨단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구미 박물관만의 특색이 담길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보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시기법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운영 전략 필요

② 지역 교육 기관 및 문화시설과의 협력 강화

- ▶ 구미시의 초·중·고교와 연계한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필요
- ▶ 구미문화예술회관, 강동문화복지회관, 성리학 역사관, 시립도서관 등 관내 전시·문화시설과 상호 협력하거나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4. 기름생산공장 공업 유적지

① 도시의 역사를 담은 맞춤형 도시재생 필요

- ▶ 산업유산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 시대의 역사와 기억을 담은 도시의 살아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활용해야함. 기름생산공장은 녹슨 철재가 주는 질감을 그대로 살려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시켜 독특한 매력이 담긴 공간을 조성
- ▶ 구미시가 방림부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추진 시에도 기존 시설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되 공장의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살린 맞춤형 문화시설로 조성해 과거와 현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연결고리 형성 필요
- ▶ 건물 외형과 내부 구조를 살린 공간에 어울리는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마련, 지역 대학·기업·예술인이 참여하는 공동기획 추진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② 문화·상업 복합형 명소로 조성 검토

- ▶ 공업유적지는 지하철 역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페와 기념품숍 등을 운영하고, 야간 조명과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하여 문화와 상업이 공존하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남.
- ▶ 문화산단도 대경선 개통에 따른 사곡역과 버스 노선을 부지에 포함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섬유방직 공장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한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등 접근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법 검토 필요

5. 메이시후 국제문화예술센터

① 기존 문화시설 및 공간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검토

- ▶ 화려한 경관을 갖춘 건물의 신축은 어려운 실정이기에 기존 건물과 주변 문화시설에 잘 어울리는 야간 경관 조명을 조성하여 도시 활력 제고 및 관광 활성화 가능
- ▶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송정동 인근 공공기관, 금오산 산책로와 연계하여 야외 예술품 설치나 시각적 요소를 강화한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검토
- ▶ 향후 산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인근 전시시설 및 박물관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기획 전시 운영 필요

② 시민 참여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필요

- ▶ 구미문화예술회관 외부 공간에 주말, 야간에 푸드트럭이나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필요
- ▶ 구미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지역 내 동네 책방, 작은 공방 등 민간 문화 공간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검토 필요

③ 지역예술인과 상생하는 종합적 체계 구축 검토

- ▶ 구미문화재단은 기획 단계부터 지역 예술인과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하고,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문화시설에 분산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